

섬이라고 택배비 '두 배'...정부 해상운송료 지원 절실

나주서 완도 생일도로 고구마 한 상자 보내는데 택배비 1만원...도선료 등 포함 다리 놓인 전남 섬 21곳 도선료 등 최대 7000원 추가...권익위 "택배사 시정해야"

나주에 사는 40대 주부 박모(44)씨는 최근 완도 생일도의 지인에게 택배를 보내다 깜짝 놀랐다. 10kg짜리 고구마 한 상자를 보내는데 택배비가 1만원이라는 말을 듣고서다. 택배기사는 "기본요금만 5000원인데 섬이라 5000원이 추가된다"고 했다. 더욱 놀란 것은 하루 뒤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다. 지인은 "택배를 선착장에서 잘 찾았다. 감사하다"고 했다. 박씨는 "택배비가 1만원 인 것도 놀랍고, 택배를 문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선착장으로 찾으러 간다는 게 더 놀랍다"며 "섬사람들도 우리 국민인데 택배비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섬 지역 택배비가 내륙보다 갑절 이상 비싼데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교육과 의료·복지·문화 등 대부분 영역에서 육지보다 낙후된 환경에서 거주하는 섬 주민들 사정을 고려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이와 별개로 다리가 건설돼 육지와 연결된 이름만 섬인 '연륙도서'로 보내는 택배에 민간 택배사가 관행적으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의 경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택배비는 운송거리와 화물 크기를 고려해 택배사가 자율적으로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1981년 '인가운임제'로 시행되다 1987년 '신고운임제'로 변경된 뒤 1998년부터는 '자율요금제'로 전환됐다. 택배비는 일반적인 주의와 노동력이 요구되는 일반요금과 운송위험과 노동력이 더 소요되는 할증요금으로 구분된다. 통상 수도권, 호남권 등 권역으로 구분돼 같은 권역이면 동일요금이 부과되고 다른 권역이거나 섬 지역 등 특수성이 고려되면 추가배송비가 포함된 비용이 청구된다. 권익위가 지난 5월 '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의결하며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택배 등 민간 3사를 통해 내륙에서 섬으로 10~20kg짜리 택배를 보낼 경우, 택배비 5000원, 도선료 5000원, 영일소위탁비 1000원 등 1만10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섬 주민이 육지로 보낼 경우, 택배비 5000원에 도선료 1000원 등 6000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낼 때와 받을 때 택배비가 차이나는 이유는 뚜렷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개당 1000~2000원씩 도선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한계로 조기 소진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권고하면서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해 섬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 한 뒤 "섬은 생활 물류 대부분이 해상교통으로 운송되고 있어 내륙과 섬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선 해상운송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 사업자에 직접 재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섬 주민에게 가장 '생활복지 바우처(쿠폰) 카드'를 발급해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직접 섬 주민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다리가 건설돼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연륙도서에 택배비 할증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점은 택배사의 자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기준 민간 3사를 통해 전국 28개 연륙도서에 택배를 보낼 경우 도선료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1500원부터 많게는 7000원까지 추가 배송료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까지 더하면 택배 1개당 최고 1만 3000원이 드는 것이다. 추가 배송료가 부과되는 연륙도서는 전남지역이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내륙과 교량으로 연결된 섬에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과도한 배송비를 청구하는 등 택배사마다 제각각 추가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륙도서 택배비에 대한 적정원가 제시 없이 관행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 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한가로운 날갯짓 17일 화순군 도곡면 들뜰에 모여든 백로들이 날갯짓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은 최고기온 30도 안팎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저녁부터 곳곳에 비가 내렸다. /나명주 기자 mjna@

오늘·내일 장대비

광주·전남 최대 150mm

오는 19일까지 광주·전남에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최대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7일 저녁에 시작된 비가 19일 새벽까지 이어지며 광주·전남 지역에 30~10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했다. 장흥, 진도, 완도 등 남해안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8일에는 돌풍·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내리며,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70mm 내외의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서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광주·전남을 통과하면서 비오는 날과 맑은 날이 번갈아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오후부터 20일까지는 비교적 맑다가, 21일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 방학 중 무상급식 시범 실시키로

직영 급식 신청 유·초교 11곳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중 무상급식 전면 실시 대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 초등학교(150개교) 1, 2학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과 공립유치원(병설 114원·단설 12원) 방과 후 유치원생 등 1만여명에게 무상급식(중식)을 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 직영 급식을 신청한 초등학교(유치원 포함)에만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직영급식을 희망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11곳을 대상으로 급식실을 시범 운영한다. 초등 1, 2학년 돌봄학생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원생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한다. 무상급식 시범운영 기간은 20여 일이다. 시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급식실 환경 및 업무 부담, 코로나 확산, 식중독 우려 등을 이유로 직영급식에 난색을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재유행 조짐을 보이는 데다 식중독 등 질병이 지난해 6월에 비해 발생 건수 1.8배, 환

자 수 3배로 폭증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직영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은 기존처럼 수의자부담(학부모 부담) 원칙에 따라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거나 도시락을 구매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범 운영을 계기로 최대한 이른 시기에 노동조합,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망라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기간 문제점 등도 모니터링해 추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맞벌이 학부모 등의 방학 중 아이돌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며 "시범학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협의기구에서 논의한 뒤 '겨울방학 무상급식 전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시민교육진흥부, 전교조 광주지부, 공무원노조 광주교육청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지난 1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하고 방학 중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 이경선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은행 ATM 앞 수상한 20대 신고하세요"

광주경찰, 보이스피싱 수거책 특징 소개

"은행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 수상한 20대가 보이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광주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특징을 소개하며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광주경찰이 붙잡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총 181명으로 이중 20대 이하가 113명으로 62.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30대 27명, 50대 19명, 40대가 17명, 60대 4명, 70대 이상이 1명 순이다. 보이스피싱 수거책들이 수거한 피해자들의 현금을 ATM기를 이용해 뒷선에 송금시 '1인당 1억 100만원 송금 제한' 제도를 피하기 위해 일명 '조끼기' 송금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광주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수거책들은 사람이 없는 365코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특징은 ▲현금 다발(돈뭉치)을 들고 있거나 ▲휴대전화에 있는 여러 개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보면서 송금하거나 ▲현금을 반복해 송금(입금)하거나 ▲누군가와 계속 전화하며 불안해 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맹고객 확보
-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임대 안내			
층	호실	임대면적	호별 위치도
1	101호	27평	1층
	102호	40평	
	103호	51평	
2	201호	27평	2층
	202호	28평	
	203호	43평	
	204호	82평	
3	301호	금남몰라이트치과	3층
	302호	72평	
	303호	83평	
4	401호	103평	4층
	402호	72평	
	403호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층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대모집)	

무궁무진 MGMG 정기예탁금

1년 **3.3%**

고아울입출금 통장

개인을 위한 자선민간자유예탁금 최고 **2.2%**

사업자를 위한 등록기업자유예탁금 최고 **2.5%**

MG골프클럽 특가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조건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할인 금액 2만원)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